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로 피어난 나의 변화

이름	오아린
전공	법학부 공법학과
학번	20220682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9회차)

글말교실 9회차를 수강하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던 저에게 반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이 아닌 바닥을 보며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런 버릇은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재는 우리랑 얘기하기 싫나 봐.”라며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곤 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이 버릇은 떼어내어 보고자 교내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글말교실 특강을 접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말투와 이미지에 대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말투만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방향 등 여러 가지가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으로 배운 것을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용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잘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유지해 보았고,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어깨를 펴고 꼴뚜기처럼 앉아 상대방의 의견을 헤아려보려 하였으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앉아 경청하니 평소와는 다르게 화자가 저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말을 이어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할 때 긴장하여 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 처리는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저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연습해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할 때 성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며 중간에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말로 정리가 안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정리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는 법과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둘 시도해보니 이전의 소극적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하던 저의 모습보다 ‘틀려도 괜찮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이 된 것 같아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부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많은 부원분들이 “아린이 요즘 기분이 좋아보이네?”라거나, “뭔가 달라졌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보기 좋다는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법은 초중고학생 시절부터 늘 배워오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배움에서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소용이 없고, 느리더라도 작은 실천을 하다보면 그것들이 뭉쳐 예전과는 다른 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뜻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말교실 특강을 통해 제가 원하는 ‘더욱 발전하는 사람’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